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나무 그늘에서 이를 떨어내다

수하탄슬도(樹下彈蠶圖)



조영석의 '이 잡는 노승'

관아재 조영우(觀我齋 趙榮祐)는 현재 심사정(玄齋 沈師正), 겸재 정선(謙齋 鄭勳)과 함께 삼원삼재(三園三齋) 중 한 분으로 자(字)는 종보(宗甫)이고, 호(號)가 관아재(觀我齋)이다. 뛰어난 화재(畫材)를 지녔으나, 생전에 세조와 숙종의 초상을 그리라는 영조의 명을 "화원들과 무릎을 꿇고 앉아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대쪽처럼 거절해서 곤경을 겪은 인물이다.

그가 그린 도석화(道釋畵) 중에 가장 그 묘(妙)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수하탄슬도'이다. 이 그림은 세간에서는 그냥 '이 잡는 노승'이란 한글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수 년 전 학교재에서 전시하면서 문화재청장을 지낸 유흥준 거사가 노승문슬(老僧文슬)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을 보았다. '문(們)자'는 '비틀어 죽인다'는 의미가 있기에 올바른 의미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 '떨어버릴 탄(彈)자'와 '이 슬(蠶)자'를 넣어, "나무 밑 그늘에서 이를 떨어내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다시 지었다.

누가 이 그림을 봐도 그림 속엔 그윽하면서도 자비로운 미소를 얼굴표정에 머금은 나이 지긋한 스님이 나무 그늘 밑, 땅위로 드러난 뿌리에 앉아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 엄지가 아닌, 검지와 중지로 조심스럽게 옷깃을 열어 떨어내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옛 경전에 "겨울에 이가 생기거든 대통(竹)에 넣어, 솜으로 덮고 먹을 것을 주라"고 했다. 비록 나를 괴롭히는 생물이지만 겨울에 내다 버리면 얼어 죽을까 염려해서 이다. 이를 담은 이 통을 슬통이라고도 하고, 은어(隱語)로는 반풍(半風)이라고도 한다. 모두 이와 관련된 한자이다. 대나무 통 속에 넣어 기르다가 봄이 되면, 풀 위에 놓아 준다. 파스한 계절에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스님들은 하루에 한 두 번씩 대통을 열어 몸 위에 놓아 피를 빨아 살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는 일생을 숙주(宿主) 몸에서 지낸다. 사람의 몸에 사는 이는 옷가지 속에 살기도 하고, 새 코끼리 멧돼지 등에 기생하면서 깃털 피부 피를 먹고 산다. 이는 대개 포유류를 매개로 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고전(古篆)을 바탕으로 독창(獨創)적인 전서(篆書)가 등방제일(東方第一)이라는 평을 받는 미수(眉叟) 허목(許穆)에 대한 야담(野談)이 전해지는 것을 읽은 적이 있다. 미수는 퇴계 이황의 성리학을 이은 분이나 아버지 허교(許喬)는 화담 서경덕의 제자인 박지하의 문인이어서 도학(道學)을 공부하였고, 사찰에 거주하며, 학문을 연마하였다는 기록을 보면, 불교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미수는 조선왕조 기간 과거를 거치지 않고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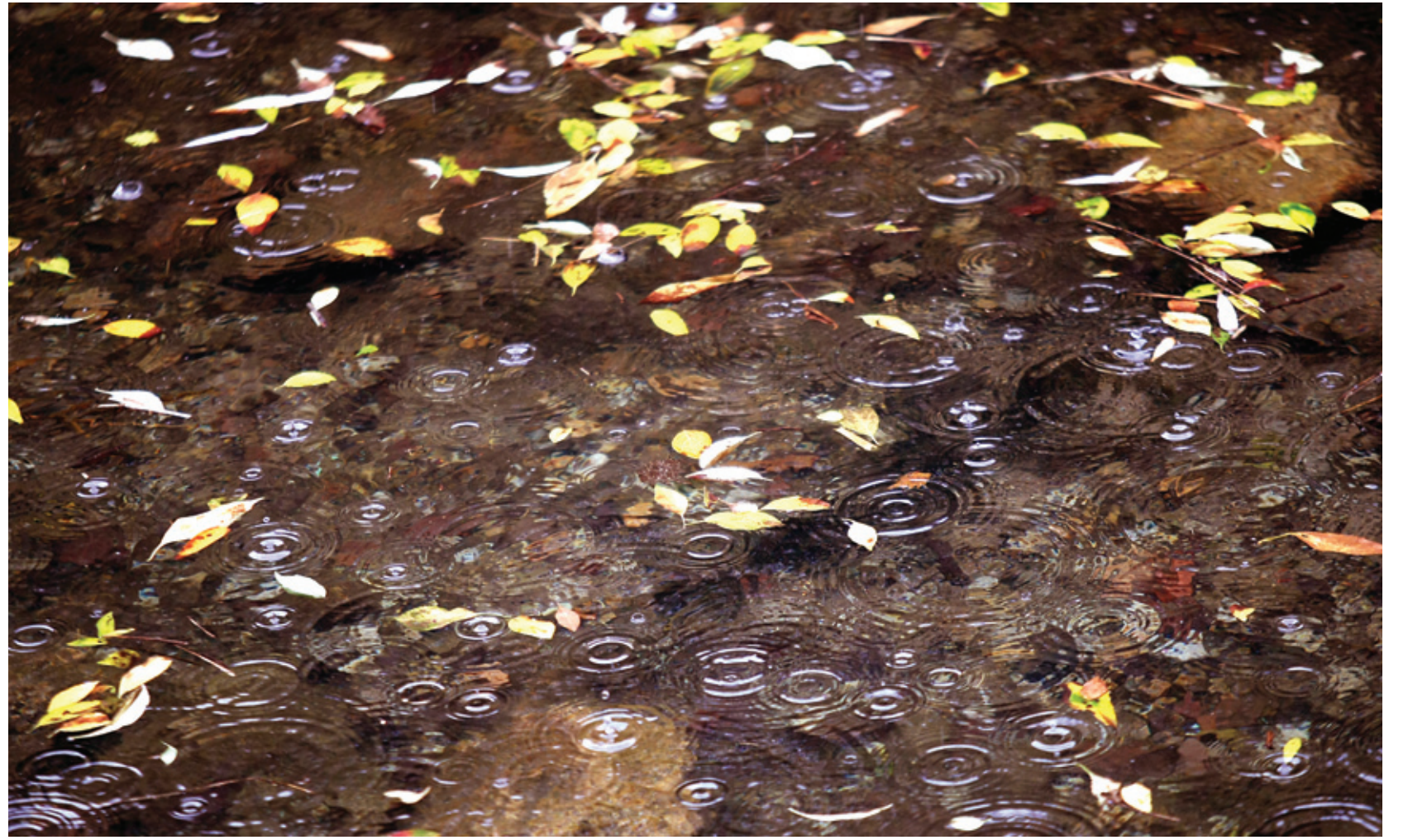
승(우의정)에 오른 몇 안되는 인물인데, 이 이야기는 그가 관직에 있었을 당시의 이야기이다. 그에게는 나이 어리고, 어여쁜 소실(小室)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재색을 겸비하고 있었다 한다.

어느 날 등청해서 궁궐에 다녀오니 소실이 없었었다. 소실집에 거하며 일하던 하인들에게 물으니 훗 만드는 사람이 들러 솥을 팔고 간 뒤에 없어졌다고 고한다. 그리하여 각방을 찾아도 찾을 수 없어서, 미수는 궁궐한 나머지 왜 높은 관리의 소실로 편히 살던 그녀가 솥장수를 따라 갔는지 깊은 상념에 빠져 결국은 화두(話頭)처럼 오매불망 그 이유를 잠도 안자고 생각하며, 앞 산 산속을 거닐다가 탁 깨쳐서 순간, 숙명통(宿命通)을 얻어 자신의 전생을 보는데, 자신은 수십 생전에 스님이었는데, 그의 몸속에 살던 이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산속에 떨어졌고, 그 알것 이는 지나가던 멧돼지에 붙어서 일생을 마쳤는데, 그 이가 바로 자신의 소실이었고, 솥장수는 바로 그 멧돼지였다고 한다. 이걸 보면, 우리 불자(佛子)님들도 한 번은 자신이 이었는지, 멧돼지였는지, 아니면 스님이었는지 생각해 볼만 하지 않을까?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누가 알았을까



<영암 도갑사>

아침 출근길이었다. 가로수에서 떨어진 노란 낙엽이 날아와 가슴에 부딪혔다. 낙엽도 나도 몰랐던 일. 누가 알았을까. 그 순간을 나는 나의 자리에서 밤을 보냈고, 낙엽은 밤새 달그림자를 썼다. 그리고 낙엽 한 잎이 떨어진 아침, <반야심경>도 없고 법당도 없

는 그 아침에 나는 낙엽 한 잎에 매달려 출근을 했다. 오랜만이였다. 멀리서 걸려온 도반의 전화에선 겨울비가 내렸다. 도반도 나도 몰랐던 일. 누가 알았을까. 그 순간을, 비는 그렇게 멀리서 내렸고, 도반이 전해준 빗소리는

온종일 가슴을 적셨다. 그리고 젖고 젖은 가슴이 끝내는 말을 했다. 보고 싶다고 비도 오지 않는 저녁. 나는 먼 빗소리에 젖어 퇴근을 했다. 어디선가 낙엽은 지고, 어디선가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누가 알았을까. 멀리서 낙엽도 비를 맞고 있었다.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강상 조선 무용수연 선사의 '대중에게 보임[示衆]'

달과 바람의 인연

折却德山棒 (절각덕산방)  
碎著臨濟喝 (쇄착임제할)  
逢人不被瞞 (봉인불피만)  
然後對風月 (연후대풍월)  
月嫌無好風 (월혐무호풍)  
風愛有好月 (풍애유호월)  
風月好好處 (풍월호호처)  
法喜長自悅 (법희장자悅)

덕산의 방망이 꺾어 없애고  
임제의 활을 부수어 버려  
사람 만났을 속임 당하지 않아야 사  
그런 후에야 풍월을 대할 수 있으리  
달은 좋은 바람 없음을 싫어하고  
바람은 좋은 달 있음을 사랑하네.  
풍월이 좋고 좋은 곳에  
법의 기쁨 자라나 절로 즐거워지네.

무경자수(無竟子秀; 1664~1737) 스님은 16세에 출가하고 나서 운문사 추계유문(秋溪有文) 대사를 찾아가 10여 년의 정진 끝에 선교를 두루 통했다. 스님의 문집에는 후학을 위한 경책의 시문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이 시 또한 대중에게 법을 가르쳐 보

인 시이다. 중국의 덕산·임제 스님은 남자를 대할 때 몽둥이질을 하고 고향으로 깨우쳤다. 법은 설명하거나 알을 알이로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보인 방편이다. 스님은 대중에게 이 몽둥이질이나 고향소리에 담긴 선법

을 타파해 상대방에게 더 이상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 자연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했다. 달과 바람은 서로 인연이 도래해 만나는 것뿐이다. 달이 바람을, 바람이 달을 기다린 것도 아니다. 스님은 달과 바람이 짝하는 곳이 법의 희열을 맛보는 경지라 한다. 바로 인연화합으로 생기(生起)하는 도리를 역설한 것이다.

호(好惡)와 유무(有無)의 분별적 사고 속에서도 법연을 즐길 수 있음을 보인 것은 당대 청원유신(靑原惟信) 선사 "참선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산을 보면 곧 산이고 물을 보면 곧 물이더라. 선리를 깨닫고 나니 산을 보아도 산이 아니고 물을 보아도 물이 아니라. 불법의 도리를 철저히 깨닫고 보니 산을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을 보면 물이 물이더라"라고 한 그 경지인 것이다.



원법 스님(운문사 종강·조계종 교수이사리)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자원 가능합니다.



-신뻘 출가자의식 지원

신뻘은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뻘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피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